R&R 31(2023) 323-350 https://doi.org/10.36365/kukirs.2023..31.323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배아론 (제1저자, 고신대학교, 부교수, 선교학)
이현철 (교신저자, 고신대학교, 부교수, 기독교교육학)

I. 서 론
II. 실천신학의 개념 및 특징
III. 실천신학 연구방법의 한계
IV. 실천신학 그리고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가능성
V. 결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실천신학이 직면하고 있는 연구방법적 측면과 개인 연구 중심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제안으로서 합의적 질적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해보았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실천신학인 기존의 문헌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개인 연구 중심을 극복하여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집단 연구수행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적절히 구현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연구과정에서 실천신학 분야의 특징과 한계 분석, 질적 연구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실천신학 영역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신학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실천신학 교과목 개설 현황도 탐색하였다. 또한 합의적 질적연구에 대한 비평적인 적용을 위하여 실천신학 연구 내 합의적 질적연구 활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도 제시하였는데, 현상에 대한 다원주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현상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자는 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천신학 내 연구방법적 고도화와 다변화의 필요성, 학문후속세대의 실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 개발의 필요성, 학계와 현장 간의 협력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같은 내용을 향후 실천신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풍토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실천신학, 합의적 질적연구, 이론, 적용, 현장성, 연구방법

논문투고일 2022.12.21. / 심사완료일 2023.02.27. / 게재확정일 2023.03.02.

I. 서 론

학문으로서의 신학 영역은 크게 이론 중심의 신학 영역과 실천중심의 신학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론 중심의 신학 영역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신학이며, 실천중심의 학문은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선교학, 그리고 예배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1] 학문적 특성에 따라 신학의 분야가 구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특성과 구분에 상관없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만 하는 학문이다. 교회의 유익과 관련하여 모든 신학 분야와 전공이 가치가 있지만, 특히나 실천성이 강조되는 영역의 경우 목회와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더욱 그 중요성에 있어 예외가 될 수 없다. 삶과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신학적 이론이 깊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사역(ministry)이 구현되기 때문에 실천신학적 논의와 적용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참된 신학은 현장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실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2] 역사 가운데 교회를 향해 탁월하였던 신학자들을 생각해보라. 루터(Luther), 칼빈(calvin), 바빙크(Bavinck) 등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신학적 작업이 실천적인 작업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칼빈은 단순한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개혁뿐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의 전체 영역이 그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 도시 전체를 성경적 교리와 윤리적 삶의 원리에 따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다.[3] 칼빈을 포함한 이들의 관심은 실천적인 교회사역을 위한 신학적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학은 본질적으로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 실천적인 성격 속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활동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계가 수행하고 현장이 인식하는 실천신학은 어떠한가? 실천신학이

* 본 연구는 2022년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배아론·이현철, "선교학 영역의 연구방법론 확장을 위한 근거이론의 적용," 「개혁논총」 58(2021), 167-168.

2 이현철,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에 관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고신신학」 19(2017), 371.

3 황대우, "칼빈의 개혁 원리와 한국교회 개혁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Ad Scripturae fontes)," 「장신논단」 51(2021), 96.

전술한 맥락 속에서의 실천적인 성격을 구현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실천신학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실천신학 연구자들이 취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실천신학의 연구방법은 그것이 본질에서 현장과 맞닿아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헌연구 중심의 접근이 주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급변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의적절한 학문적 도움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물론 문헌연구를 통한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논의가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역 현장을 반영하고, 그러한 장에서 터지는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이다.

다음으로 실천신학의 연구는 여전히 개인 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문으로서 신학 영역은 공동연구보다는 개인 연구 중심의 접근이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실천신학의 영역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와 사역 현장의 크기와 넓이는 개인 연구자가 모두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연합된 공동연구 혹은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풍토가 약하다는 점이다.[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천신학이 직면하고 있는 연구 방법적 측면과 개인 연구 중심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으로서 합의적 질적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소수의 사례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수행하면서 주제에 대한 다수의 평정자의 다양한 관점을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실천신학을 문헌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개인 연구 중심의 풍토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합의적 질적연구를 통해 실천신학 내에서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집단 연구수행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적절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천신학 분야의 특징과 한계 분석, 질적 연구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개념

4 물론 해당 사항의 경우 실천신학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및 특성 그리고 실천신학 영역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실천신학의 개념 및 특징

신학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데오로기아(θεολογία)에서 파생되었는데, 신(God)을 의미하는 데오스(θεός)와 이야기, 학문 또는 말 등을 의미하는 로기아(λογία)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다.[5] 뜻을 풀어 설명하면 신(God)에 대한 학문 또는 이야기를 뜻한다. 신학의 영어식 표기인 'Theology', 그리고 한자'神学(신학)'도 비슷한 뜻을 지키는데 역시 신에 관련된 학문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은 사변적이며 철학적인 학문 분야로 이해한다. 신학이 자연 과학적 분야가 아닌 인문학적(철학적)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인류의 역사 발전 특히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그레코로만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신약성경의 무대이기도 한 지중해 연안의 문명은 고대철학의 발생지며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계보를 통하여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을 추구하였다. 신약성경이 고대 그리스어[6]로 기록된 것도 이런 환경적 요인을 잘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신학의 의미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로 인식된다.[7]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중세시대 신학은 중세 스콜라 신학,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런 발전이 중세시대에

---

5 Bauer, Walter, William F. Arndt, F. Wilbur Gingrich, and Frederick W. Dank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476.

6 중세 그리스어의 모체인 Koine Greek(코이네 헬라어)은 비잔틴왕국 때 보편적으로 읽히고 쓰였던 언어이며 이후 현대 그리스어로 발전한다. 관련된 자료로는 Horrocks, Geoffrey, *Greek: A History of the Language and its Speakers* (John Wiley & Sons, 2009), xiii 를 보라.

7 Grenz, S. J.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2.

이르러서는 스콜라 신학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스콜라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신학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의 3가지 측면으로 규명했다.[8] 이것은 신학의 분과에 대한 중요한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을 다루는 학문 분야는 신약, 구약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예수님, 인간, 구원, 죄, 종말 등의 중요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신학 등 역시 포함이 된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12~13세기 이후로 신학에 대한 이해는 많은 대학의 설립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9]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두게 되었고 성경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 신학의 범주로 인식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설교와 성경공부의 주체인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 또한 신학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며 오늘날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분야들을 신학 학문으로 간주한다. 그 대표적인 학문은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이다.

실천신학은'實踐'(실천), 즉 '실제(實際)로 해냄' 또는 '실제(實際)로 이행' 하는 신학이라는 뜻을 지니며, 영어로도 'Practical Theology' 즉 실제적인 신학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제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범주의 폭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실천신학의 분과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주제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실천신학 교과목들은 목회학, 상담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윤리학, 예배학 등이다.

실천이라는 용어가 현장을 내포하고 있기에 어떤 이론적 학문 분야이기보다 적용 분야이며 신학의 분과에서 부록 정도의 낮은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도 존재한다.[10] 하지만 실천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에르마허

---

8 Kelly M. Kapic. *A Little Book for New Theologians. Why and How to Study Theology*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2), 36.

9 Grenz, S. J. 2.

10 Long, Thomas, G. and Farley, Edward. eds,. *Preaching as a Theological Task: World,*

(Schleiermacher)는 실천신학이 이론적인 학문과 구별된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이론적인 것만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 역시 학문적 가치가 있으며 오히려 이론이 첨가되지 않은 기술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실천신학 역시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의 학문임을 주장하였다.[11] 그는 이러한 전제로 신학을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나무의 뿌리는 철학적 신학, 나무의 줄기 또는 몸체는 역사신학 그리고 나무의 면류관은 실천신학이라며 그 학문적 위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12] 다시 말해 실천신학은 이론 중심의 신학에 비하여 학문성이 약한 비주류의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론 신학의 최종 결과물이자 열매이다.

또한, 실천신학은 이론 신학이 빠져 있는 현장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이론 신학을 근간으로 현장(목회지, 선교지 등)의 업무 및 기획 방식,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이 정해진다. 가령 예를 들어 선교학이라는 학문은 선교라는 현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실천신학의 한 분과로 분류된다. 선교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의 정의는 이론 신학 즉, 성경 신학을 근간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선교의 범주를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복음증거 활동을 선교라고 정의를 내리는 A 신학교와 복음증거가 없더라도 인본주의에 입각한 구제의 전반적인 활동을 선교로 규명하는 B 신학교의 선교학 교과의 교과 목표, 커리큘럼, 지향하는 현장성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처럼 실천신학은 현장과 연관되는 교과목들로 구성돼 있지만 이론 중심의 신학과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필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III. 실천신학 연구방법의 한계

Gospel, Scriptur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32.

11 John E. Burkhart, "Schleiermacher's Vision for Theology," in Don. S. Browning ed.,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47-48.

12 Friedrich Schleiermacher, *Brief Outline of Theology as a Field of Study*, trans. Terrence N. Tice (Lewiston, NY: E. Mellen Press, 1988)

실천신학의 학문적 가치는 오늘날에도 강조된다.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막론하고 실천신학의 분과는 급변하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여 필수 교과로 개설이 되고 있다.

〈표 1〉 미국남침례신학교 목회학석사 커리큘럼(필수 교과)[13]

교과목코드	과목명	학점
20200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	3
20220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I	3
20440	Hebrew Syntax and Exegesis	3
22100	Biblical Hermeneutics	3
22200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	3
22220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I	3
22440	Greek Syntax and Exegesis	3
25100	Introduction to Church History I	3
25120	Introduction to Church History II	3
26200	Southern Baptist Heritage and Mission	3
27060	Systematic Theology I	3
27070	Systematic Theology II	3
27080	Systematic Theology III	3
29250	Survey of Christian Ethics	3
40150	Personal Spiritual Disciplines	3
28700	Christian Apologetics	3
30000	Christian Preaching	3
45400	Christian Teaching	3
30020	Preaching Practicum	3
40200	The Worshiping Church	3
32100	Personal Evangelism	3
32960	Introduction to Missiology	3
34300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3
40301	Pastoral Ministry	3
45260	Discipleship and Family Ministry	3
44910	Applied Ministry: Theology	1
40080	Christian Leadership	3

13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Catalog 2022-2023. 61. https://sbts-wordpress-uploads.s3.amazonaws.com/sbts/uploads/sites/3/2022/08/SBTS-Academic-Catalog-22-v4-8-10-22.pdf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 하나인 미국남침례신학교(SBTS)는 신학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성과 가장 직접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은 목회학석사이다. 목회학석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 학위이며 목회학석사 취득자에 한하여 풀타임 목회자(강도사) 자격 시험이 주어진다.[14] 그러므로 목회학 석사과정에서 어떤 교과목이 어떤 방식으로 개설이 되고 운영되느냐는 그 과정의 현장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위의 표는 미국남침례신학교에서 운영하는 목회학석사 과정 중 필수교과목(Core) 리스트이다. 총 70학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45학점이 성경 및 신학 관련 교과목들(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이고 나머지 25학점이 실천신학과 연결되는 선교 및 전도 교과목들(Missions, Evangelism and Ministry)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들[15]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신학대학원은 목회학 석사과정을 세분화하여 목회전공(일반과정)과 선교전공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선교전공 트랙의 학생은 선교 관련 15학점을 추가로 이수를 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필수 자격이 부여된다. 합동신학대학원은 신학전공과정과 선교학전공 과정을 두고 있으며 선교학전공은 해외 선교훈련, 선교 실제 및 훈련, 문화인류학, 세계전공, 도시선교, 교회 성장원리, 선교역사 등의 과목 총 16학점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두고 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은 '목회 진로'라는 교과목이라는 특징이 돋보인다. 목회 진로는 3개의 심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목회 진로 1'은 복음 전도의 방법을 '목회 진로 2'는 목회방향모색을, '목회 진로 3'은 교회개척과 진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실천신학 교과명에 성경을 추가함으로 실천신학을 이론 신학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 역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아신대학교대학원은 공통으로 개설된 실천신학 교과목은 예배학, 선교신학, 그리고 설교학 3개의 교과로 구성되었지만 선교트랙, 교육트랙, 그리고 상담트랙의 3개의 실천신학 트랙의 목회학석사를 제공하

14 교단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15 한국 내 신학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학교 중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학교와 범복음주의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고 있다. 공통필수로 72학점을 이수를 해야 하지만 각각의 트랙은 트랙 필수 6학점[16]과 선택교과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표 2〉 국내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과목 개설 상황[17]

고려신학 대학원[18]	합동신학 대학원[19]	한국침례신학 대학원[20]	백석대학교 대학원[21]		아신대학교 대학원[22]
교회교육(2)	설교학(3)	예배학(3)	목회진로(3)		예배학(3)
목회상담학(3)	선교학(3)	선교학(3)	성경과윤리(2)		선교신학(3)
목회학(3)	기독교교육학(3)	설교학(3)	성경과설교(2)		설교학(6)
예배학(2)	목회상담학(3)	교회행정(3)	성경과설교실습(2)		
설교학(2)	예배학(2)	목회윤리(3)	성경과목회(2)		
설교실습(3)	설교실습(2)	목회실습(12)	교회헌법/행정(3)		
교회정치(2)	목회와교회정치(3)		교회와사회봉사		
실천신학개론(2)	전도와변증(2)		성경과교회교육		
상담실습(1)			성경과목회상담	(12)	
			성경과선교		
			성경과예배		
필수학점/졸업이수학점/실천신학 개설 학점					
95/106/20	81/106/21	37/90/27	80/92/26		72/90/12

전술된 국내·외의 신학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천신학 교과목들은 2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체 신학교 커리큘럼에 있어서 실천신학의 비율이 낮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졸업 필수 이수학점 중 실천신학의 비중이

16 선교트랙: 선교 인류학, 선교 신학; 교육트랙: 성경 교수법, 교육목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상담트랙: 가족 상담, 상담실습.

17 5개 신학대학원의 교과과정표 전체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생략하며 각주 19-23을 통해 확인하라. 〈표 2〉는 각 신학대학원의 교과과정 중 실천신학 파트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작성한 도표이다. 5개 신학대학원의 경우 장로교, 침례교, 초교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18 https://www.kts.ac.kr/home/content/c1616283785

19 https://www.hapdong.ac.kr:446/bbs/page.php?hid=c02

20 https://gtheology.kbtus.ac.kr/gtheology/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1

21 https://community.bu.ac.kr/sites/graduateschool/files/pdf_curriculum_2.pdf

22 https://www.acts.ac.kr/grad/design/contents10.asp?code=221112&left=course2_2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백석대학원은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이 92학점이며 실천신학 관련 교과는 20학점이 개설된 상태이며 아신대학교 대학원은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이 90학점이며 각각 실천신학 트랙 필수 학점이 6학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정한 학교뿐 아니라 국내·외 정규 신학교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천신학 영역의 학문 방법론인 이론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령 합동신학대학원의 경우 졸업을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06학점인데 선교전공 학생들은 선교 관련 교과목(실천신학)을 8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신학 교과목 중 실천신학 교과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래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육하기 위한 효과적 접근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실천신학 영역의 교과목의 과목 설계 또는 접근방식이 여전히 이론적이다. 물론 설교실습과 설교연습 등의 비 이론적 교과목들이 존재하지만 예배학, 기독교교육학, 목회상담학, 설교학, 전도와변증, 교회 정치 및 행정, 등의 교과목은 여전히 그 방법론에서 이론 기반의 접근이다. 물론 목회학석사(M.Div.)과정이 신학 영역의 모든 영역을 개론적으로 섭렵해야 하는 특징이 있지만, 그 방식에서 있어서 이론적 접근이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 속에 현장의 성도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들,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실천신학 영역들의 연구방법이 기존의 이론 중심의 접근보다 현장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IV. 실천신학 그리고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가능성

1. 합의적 질적연구의 개념

실천신학 내 연구와 분석은 교회 및 사역 현장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살펴야 하고, 그들의 내면적 상황과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론 신학 및 그와 관련된 전공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천신학이 본질에서 지향하는 바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직면하는 사역적 딜레마와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것들에 가능한 해답을 주어야만 하는 학문적 책무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러하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사역 현장에서는 전술한 실천신학 영역이 가진 학문적 책무성과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역적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사역 전략 구축 및 방향성 제시 등 실제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내면적인 갈등과 딜레마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수준에서 요청받게 되었다. 실제로 '펜데믹 이후의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연구, 기사, 교계의 행사들은 실천신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하게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3]

하지만 교회 및 사역 현장이 지닌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주체로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내면적인 사항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실천신학적 분석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YES'라고 답을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동안 실천신학은 주로 문헌연구 중심의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접근을 수행해왔으며, 체계적인 분석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들은 실천신학 연구의 확장과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합의적 질적연구

23 구체적으로 관련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물들을 살펴보길 제안하는 바이다. 김상덕, "코로나 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 「신학과 실천」 76(2021). 797-817; 김순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교회 예배 대안 모색: 삶 속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예배지평 확장," 「신학과 실천」 77(2021), 39-66; 김영동, "포스트코로나 교회 구조변화와 목회와 선교 방향연구," 「선교와 신학 54(2021), 13-39; 김용성,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언," 「장신논단」 53(1)(2021), 277-302; 김은희, "코로나 19(Covid 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대처에 관한 연구: 예배와 선교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53(2020), 99-122; 김주한, "바울의 예배 기획 원리를 통해 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예배 방향성 제안," 「성경과 신학」 95(2020), 23-56; 윤영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46(2020), 205-237; 이찬석, "팬데믹 시대 교회와 신학의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64(2021), 107-138; 이현철·문화랑·이원석·안성복, 『코로나시대 청소년 신앙리포트』 (서울: SFC, 2021); 정재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변화와 공공성," 「신학과 실천」 73(2021), 857-886; 조해룡,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적 변화와 선교적 대응," 「선교신학」 62(2021), 278-309; 최원진, "COVID-19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복음과 선교」 52(4)(2020), 203-24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를 제안하는 바이다. 개별적 방법론의 자체는'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유용할 도구'가 될 수 있으며,[24] 철저한 신학적 검증과정을 통하여 한계점을 설정하여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적 질적연구 역시 실천신학의 방법론 확장과 현장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합의적 질적연구가 가진 장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된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University of Maryland의 Clara Hill, American Day Behavioral Health Care System의 Barbara Thompson, University of Maryland의 Elizabeth Williams가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라는 50페이지 넘는 분량의 논문을 The Counseling Psychologist에 발표[25]함으로써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소개되었으며, 이후 상담심리 전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에 적용되고 있다. Hill은 그의 저서에서 합의적 질적연구에 대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소수의 사례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수행하면서 주제에 대한 다수의 평정자의 다양한 관점을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Hill, 2012).[26]

물론 합의적 질적 연구 자체가 기존의 질적연구의 전통과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론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Hill과 그의 동료들 역시 자신들에 의해 개발된 합의적 질적연구가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같은 접근에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의 보완과 확장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도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Hill과 그의 동료들은 전술한 논문에서 '*Locating CQR within the qualitative research tradition*'을 구성하여

---

24 배아론·이현철, "선교학 영역의 연구방법론 확장을 위한 근거이론의 적용," 「개혁논총」 58(2021), 179.

25 C. E. Hill,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October, 1997), 517-572; Clara E.Hill.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 주은석 역(경기: 학지사, 2016).

26 C. E. Hill.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8-12.

질적 연구의 흐름 속에서 CQR이 지닐 수 있는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27] 그러므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론이 존재함에도 Hill과 그의 동료들이 제안하는 합의적 질적연구가 '여러 명의 평정자가 각 연구 사례의 특성들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합의적 질적연구의 특성

합의적 질적연구는'연구문제와 관련된 소수의 사례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수행하면서 주제에 대한 다수의 평정자의 다양한 관점을 합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질적연구 방법론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합의적 질적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Hill, et al., 1997; 한경화, 2021).[28]

첫째, 합의적 질적연구는 여러 명으로서 구성된 합의체인 연구팀에 의해서 논의되고 궁극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현상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적 오류와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합의적 질적연구는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맺으며 개념화해나갈 수도 있으며, 영역마다 비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해나갈 수도 있다. 이는 소위 중심범주와 하위범주들의 전형적인 위계성을 고려하면서 분석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합의적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사례의 전형적인 요소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준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자료를 사례마다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영역 내에 나타난 각 범주에서 사례 수를 도표화하고 빈도에 따라서 일반성과 전형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를 코딩하여 각 영역에서 중심개념을 추론해 내는 일반적인 질적연구의 접근과는 다소

---

27 C. E. Hill,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520.

28 C. E. Hill,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521; 한경화, "치매 예방을 위한 AI-기반 인지훈련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29.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는 사례의 전형적인 요소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수행을 위한 주요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Initial Step'➜ 'Within Case Analysis'➜ 'Cross Analysis'➜ 'Examining Patterns in the Data'➜ 'Final Step'과 같다(Hill, et al., 1997; Hill, 2012)[29]

'Initial Step'의 단계는 연구자가 주제를 선택 및 문헌 조사를 수행하고 평정자 혹은 합의 과정을 진행할 연구팀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또한,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면담과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를 수집 및 전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Within Case Analysis' 단계에서는 연구팀의 각 사례 분석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각 사례의 핵심 개념들을 구성한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연구 감수자에게 보내 핵심 개념들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Cross Analysis' 단계에서는 사례들과 관련된 영역 내에서 범주를 개발하고, 감수자에게 보내 수정 및 보완 과정을 진행한다. 해당 과정을 통해 적절한 내용도출을 충족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Examining Patterns in the Data' 단계에서는 사례 내 유사한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관계성을 구성한다. 해당 관계성에 대하여 감수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보완 과정을 진행한다. 'Final Step' 단계에서는 사례 전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사례들에 대하여 명료하게 기술한다. 연구자는 해당 과정을 반복적인 글쓰기 과정을 통하여 구성해나가며,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 동료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해나간다.

3.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가능성

연구문제와 관련된 소수의 사례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수행하면서 주제에 대한 다수 평정자의 관점을 합의해나가는 과정은 실천신학적 이슈와 연계될

29 C. E. Hill,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526-527. Figure 1. flowchart of tasks within the CQR method를 통해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합의적 질적연구의 개념과 특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연구자, 현장 목회자, 현장 관계자의 연계 가능성이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여러 명으로서 구성된 합의체인 연구팀에 의해서 논의되고 궁극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현상을 분석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개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적 오류와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천신학적 주제와 대상 분석에 매우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실천신학적 주제는 교회와 관련된 현장 목회자와 성도 등의 현장 관계자 간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며, 이때 각 집단의 특성과 관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적 질적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적 과정은 현장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배경도 타당도 작업을 통하여 연구 과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실천신학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적용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실천신학 내 구현의 실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연구자 및 현장 관계자의 연계 가능성과 관련하여 최수미·유인화·김동일·박애실의 연구[30]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들의 경우 위기학습자로서 교육사각지대 학습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하여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현장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비구조화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을‘학습 및 인지’,‘정서행동’,‘관계’, ‘일상생활’,‘환경’5개의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사각지대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대학의 교수와 학생이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현장 교사로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자, 현장 목회자, 현장

30 최수미·유인화·김동일·박애실, “현장 교사가 지각하는 교육사각지대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학습장애연구」16(3)(2019), 23-49.

관계자의 연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목회 현장'의 주체들로서 이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참여할 수 있음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례별 심층분석과 교차 분석의 가능성이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맺으며 개념화해나갈 수도 있으며, 각 영역마다 비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해나갈 수도 있다. 이는 소위 중심범주와 하위범주들의 전형적인 위계성을 고려한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합의적 질적연구를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사례별 요소 도출의 가능성은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보하는 것이며, 더불어 해당 사항들의 교차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구주제의 심층성을 확보해 주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규진·이지미·이수정·이도형이 수행한 연구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31] 해당 연구는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이용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개신교인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신자 12명(40대 미만)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이를테면 '심리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나 꺼리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당신이 개신교인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개신교인이 상담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등이다. 연구자들은 각자가 핵심내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연구팀에서 범주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를 토의하여 잠정적으로 범주목록을 도출한 후, 연구자 각자가 분량에 따라 범주화를 실시해보고 연구팀이 함께 토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범주목록을 수정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해당 범주화 과정 중에도 핵심내용 코딩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내용이 하나 이상의 범주로 묶일 때 이중으로 범주화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한 연구자가

31 연규진·이지미·이수정·이도형,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7(5)(2016), 243-267.

범주화한 것을 다른 연구자가 검토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심리상담에 대한 호의적 인식", "심리상담에 대한 회의적 인식", "심리상담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13개의 범주를 도출해주었다. 연규진·이지미·이수정·이도형(2016)의 경우 사례별 심층분석과 교차 분석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상담인식에 심층적인 의미와 매락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역 전략 및 정책 도출의 가능성이다. 합의적 질적연구의 특성은 사례수를 도표화하고 빈도에 따라서 일반성과 전형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를 코딩하여 각 영역에서 중심개념을 추론해 내는 일반적인 질적연구의 접근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연구자에게 사례의 전형적인 요소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실천신학적 접근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사역 전략 및 정책 도출이 포함될 것인데 합의적 질적연구를 통한 논의와 분석은 관련 주제의 의미와 방향성을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준다는 점이다. 또한, 합의적 질적연구는 근거이론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사역 전략 및 정책 도출을 위한 이론화 작업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역 전략 및 정책 도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인숙·박재연의 연구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32] 이들은 청소년기에 자해 행동을 경험한 성인 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해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해행동을 하기 전 경험, 자해행동 당시의 감정과 경험, 자해 행동 이후의 경험, 자해행동을 멈추고 극복해 나간 경험'의 4가지 영역과 9개의 범주를 도출해주었다. 이를 통해서 '자해 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우선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또래 상담과 가족 상담 등의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가까운 주변에서 자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자해 행동이 성인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상담 장소나 예방 상담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과

32 이인숙·박재연, "청소년기 자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8(7)(2021), 185-206.

같은 정책적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4.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시 유의점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상에 대한 다원주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합의적 질적 연구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서 논의 및 합의를 통하여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된다. 또한, 구성된 팀이 팀원의 성격과 유형 등의 편차로 인하여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실천신학 영역의 선교학에서 다루어지는 '상황화'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황화가 다양한 토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알맞도록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다원주의적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혼합주의를 일으킬 뿐이다. 성경적 상황화는 불변하는 말씀을 근간으로 그리고 말씀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점을 모색을 한다. 가령 팀 켈러(Timothy Keller) 목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다원주의가 그 어느 곳보다도 통용되고 있는 미국 뉴욕이라는 곳에서 "상황화와 문화"에 대하여 강조를 하지만 불변하는 복음의 테두리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33]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학문 공동체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고 세밀하게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인식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지만, 현상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해석과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본질적인 개별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는 합의적 질적연구 혹은 전반적인 질적연구 전통들이 지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실천신학 연구를 위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활용 시 반드시

33 양현표, "팀 켈러의 목회론: 『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29(2022), 313-314.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실천신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부패(Total Depravity)'한 존재로서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고백하고 있듯이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며, 출생 때부터 죄 중에 거하여(시 51:5)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전술한 인간 이해를 기초한다면 개별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학문 수행에 있어 겸손한 자세와 입장을 의식적으로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으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연구자는 타락하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34]

셋째, 현상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와 같은 인식론에서는 소규모 샘플에 대한 연구결과 구성과 도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본질에서'해당 연구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는 부분이다.[35] 앞에서 언급이 되었듯 구성원들 혹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성향까지 반영된다면 더욱 일반화하기 힘든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는 최근 연구 방법론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 간의 접목을 하여 통합연구 형식으로 제시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적하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36] 물론 합의적 질적연구 자체가 기존의 질적연구가 지니고 있는 해당 이슈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로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합의적 질적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는 실천 신학의 4가지 과제로 '서술-경험적, 해석적, 규범적, 실용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

34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교육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제6장)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22).

35 M. Myers,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Generalizability Question: Standing Firm with Proteus," *The Qualitative Report* 4(3)(2000), 4.

36 통합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오. 이현철·김영천·김경식, 『통합연구방법론:질적연구 양적연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3).

현상에서 직면하는 문제, 원인, 대응 등과 관련된 실천적인 질문을 수행하는 과정[37]으로 설명한다. 즉, 실천신학의 핵심이 그러한 실천적인 질문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신학의 특성적 맥락에서 합의적 질적연구와 같은 접근은 실천신학의 과제들을 흥미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접근과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 준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실천신학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들에게 있어 연구방법론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훈련과정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합의적 질적연구와 같이 사례 분석과 범주화 과정을 수행해야만 하는 전문적인 접근은 해당 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실천신학 전공의 학위과정 또는 신학교 내 목회자 양성 과정 내에서는 전문적인 관련 역량을 훈련받고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는 국내·외 신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천신학이 직면하고 있는 연구 방법적 측면과 개인 연구 풍토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제안으로서 합의적 질적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해보았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실천신학인 기존의 문헌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줌과 동시에 개인 연구 중심의 풍토도 극복하여 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집단 연구수행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적절히 구현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분석과정에서 실천신학 분야의 특징과 한계 분석, 질적 연구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실천신학 영역 내 합의적 질적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특별히 실천신학 분야를 다루면서 국내·외의 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천신학

37 Richard R.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8), 4.

교과목들도 탐색하여 교육과정의 한계와 이론 중심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또한 합의적 질적연구의 개념을 다루면서 합의적 질적연구가 '여러 명의 평정자가 각 연구 사례의 특성들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적 확장과 한계적 상황을 극복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실제로 합의적 질적연구는 연구자, 현장 목회자, 현장 관계자의 연계 가능성, 사례별 심층분석과 교차 분석의 가능성, 사역 전략 및 정책 도출의 가능성 등으로 실천신학 분야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실천신학의 적용과 활용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유용한 도구로서의 방법론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한 기초적인 분석은 향후 실천신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풍토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실천신학 내 연구 방법적 고도화와 다변화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실천신학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연구 방법적 한계와 딜레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방법론적인 고도화와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실천신학의 연구주제와 대상이 되는 모든 영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삶 그 자체이기에 이에 대한 탄력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문헌연구 중심의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신학계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질적연구방법, 양적연구방법, 그리고 통합연구방법 등에 대한 기초 및 적용 연구와 관련된 담론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문 후속세대의 실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 개발의 필요성이다. 실천신학의 발전적 미래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되는 학문 후속세대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목회학석사(M.Div) 과정 이후 대학원 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천적인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는 연구방법적 이해의 전제가 되는 분석적 사고와 프로그램들을 학습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계와 현장 간의 협력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다. 실천신학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 영역은 '현장성의 부재 혹은 현장과의 괴리(乖離)'라는 측면이다. 이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그것에 기반을 둔 이해에 근거하여 해소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실천신학계 상황은 현장과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계-교회-사역팀들 간의 협력적 프로젝트의 장이 활발하게 개설된다면 해당 사항의 딜레마들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는 매년 대학의 전문 연구자, 총회교육기관, 현장 목회자, 현장 사역자들의 연합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현장성있는 연구와 실천적 사역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38] 해당 사항의 경우 현장성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과 사례로써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실천신학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실천신학의 한계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실천신학이 지니고 있는 일반론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초하여 이루어졌기에, 좀 더 면밀한 연구동향적 분석이 후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38 기독교보. "총회교육원·SFC,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방향 모색". 2022년 11월 9일 기사. http://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13 2022년 11월 12일 검색

[참고문헌]

Bauer, Walter, William F. Arndt, F. Wilbur Gingrich, and Frederick W. Dank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Burkhart John E."Schleiermacher's Vision for Theology," In *Practical Theology*, ed. Don. S. Brow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3.

Grenz, S. J.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

Hill Clara. 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Hill Clara. 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 경기: 학지사, 2016.

Hill Clara. E., B. J. Thompson, and E. N. Williams.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October, 1997). 517-572.

Horrocks, Geoffrey. *Greek: A History of the Language and its Speaker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9.

Kelly M. Kapic. *A Little Book for New Theologians: Why and How to Study Theology.*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12.

Long, Thomas, G. and Farley, Edward. Eds. *Preaching as a Theological Task: World, Gospel, Scriptur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Myers, M.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Generalizability Question: Standing Firm with Proteus." *The Qualitative Report* 4(3) (2000), 1-14.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08.

Schleiermacher Friedrich. *Brief Outline of Theology as a Field of Study.* Trans. Terrence N. Tice, Lewiston, NY: E. Mellen Press, 1988.

김상덕.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성, 그리고 한국교회.”「신학과 실천」 76(2021), 797-817.

김순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교회 예배 대안 모색: 삶 속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예배지평 확장.”「신학과 실천」 77(2021), 39-66.

김영동. “포스트코로나 교회 구조변화와 목회와 선교 방향연구.”「선교와 신학」 54(2021), 13-39.

김용성.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언.”「장신논단」 53(1)(2021), 277-302.

김은희. “코로나 19(Covid 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대처에 관한 연구: 예배와 선교를 중심으로.”「개혁논총」 53(2020), 99-122.

김주한. “바울의 예배 기획 원리를 통해 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예배 방향성 제안.”「성경과 신학」 95(2020), 23-56.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교육원.『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제6장).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22.

배아론·이현철. “선교학 영역의 연구방법론 확장을 위한 근거이론의 적용.”「개혁논총」 58(2021), 167-196

양현표. “팀 켈러의 목회론:『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중심으로.”「갱신과 부흥」 29(2022), 307~343.

연규진·이지미·이수정·이도형.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질적연구.”「상담학연구」 17(5)(2016), 243-267.

윤영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대학과 선교」 46(2020). 205-237.

이인숙·박재연. “청소년기 자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청소년학연구」 28(7)(2021), 185-206.

이찬석. “팬데믹 시대 교회와 신학의 과제.”「한국조직신학논총」 64(2021), 107-138.

이현철. “고신의 역사신학자 이상규에 대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고신신학」 19(2017), 365-395.

이현철·김영천·김경식.『통합연구방법론:질적연구 양적연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3.

이현철·문화랑·이원석·안성복.『코로나시대 청소년 신앙리포트』. 서울: SFC(2021).

정재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변화와 공공성.”「신학과 실천」 73(2021),

857-886.

조해룡.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적 변화와 선교적 대응.” 「선교신학」 62(2021), 278-309.

최수미·유인화·김동일·박애실. “현장 교사가 지각하는 교육사각지대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학습장애연구」 16(3)(2019), 23-49

최원진. “COVID-19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복음과 선교」 52(4)(2020), 203-242.

한경화. “치매예방을 위한 AI-기반 인지훈련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차의과학대학교, 2021.

황대우. “칼빈의 개혁 원리와 한국교회 개혁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자!(Ad Scripturae fontes).” 「장신논단」 51(2021). 93-119.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교과과정. https://www.kts.ac.kr/home/content/c1616283785. 2022년 12월 3일 검색

기독교보. “총회교육원·SFC,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방향 모색”. 2022년 11월 9일 기사. http://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13 2022년 11월 12일 검색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교과과정. https://www.hapdong.ac.kr:446page.php?/bbs/ hid=c02. 2022년 12월 3일 검색.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Catalog 2022-2023. 61. https://sbts-wordpress-uploads.s3.amazonaws.com/sbts/uploads/sites/3/2022/08/SBTS-Academic-Catalog-22-v4-8-10-22.pdf. 2022년 12월 1일 검색

한국침례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교과과정. https://gtheology.kbtus.ac.kr/gtheology/CMS/Contents/Contents.do?mCode=MN031 2022년 12월 3일 검색.

백석대학교 대학원. https://community.bu.ac.kr/sites/graduateschool/files/pdf_curricullum_2.pdf. 2022년 12월 3일 검색.

아신대학교 대학원. https://www.acts.ac.kr/grad/design/contents10.asp?code=221112&left=course2_2. 2022년 12월 3일 검색.

[Abstract]

Use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Practical Theology Research

Aa Ron Bae
(First Author,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Missiology)
Hyun Chul Lee
(Corresponding Author,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hristian Education)

In this study, consensus qualitative research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as a practical sugges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search methodology and individual oriented research that practical theology faces.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cused on this study allows field-oriented research to be carried out by departing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as known as practical theology, and at the same time overcomes the individual research-oriented methods to create an academic field for group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appropriately implement the academic foundation for group research by experts who have experienced the field. Specifically,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practical theolog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within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applicability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within practical theology. In this process,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al theology courses offered at domestic and foreign seminaries was also explored. In addition, for the critical application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some points were advised when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 practical theology.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influenced by

subjective evaluation and perception, and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ation of phenomena. Based on this, contents such as the need for advancement and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within practical theology, the need for developing training progress courses to strengthen the practical capabilities of the next generation, and the need for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academia and the field are addressed for future research and academic work in the field of practical theology followed by suggestions for academic environment improvement.

Key Words: Practical Theolog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ory, Application, Fields, Research Method